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2026 Vol.14

발행일 2026. 9. 20. **발행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편집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학교체육, 수업에서 스포츠 경험으로: 데이터로 살펴본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의 변화

국민준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초등학교 3~6학년은 학년별 연간 102시간의 체육수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현재 3년간 체육수업 272시간과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136시간을 운영하고 있음. 고등학교는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체육을 매 학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체육 교과(군) 필수 이수 기준을 10학점으로 두고 있음.
- 실제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기준을 바탕으로 체육수업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있음. 2025학년도 중학교의 65.0%가 체육수업 기준 시수를 초과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35.1%는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음. 고등학교의 3년간 체육교과 총 편성 학점도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모두 일반고와 특성화고에서 교육과정의 필수 이수 기준인 10학점을 넘어섬.
-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2022~2023년에는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함. 대면 축전은 2022년 16개 종목·11,957명에서 2025년 20개 종목·16,346명으로 운영 종목과 참가 학생 규모가 확대되며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와 교류의 장으로 이어지고 있음.
-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뒷받침하는 학교의 공간적 기반도 확대되고 있음. 전국 학교의 체육관은 2021년 7,964개에서 2025년 9,205개로 증가하여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신체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학교체육은 정규 체육수업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을 확보해 왔다. 특히 2012년 중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도입되었고, 고등학교에서는 매 학기 체육수업을 편성하는 등 학생들의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상의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학교에서는 체육수업을 기준보다 확대하여 편성하는 모습도 나타나며, 학교에서 경험한 스포츠는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을 통한 교류로도 이어지고 있다. 학교의 체육관도 지속 확충되어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적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학교에서 움직이는 시간과 공간, 어떻게 마련되고 있을까

학교는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신체활동을 경험하는 중요한 공간 중 하나이다. 특히, 체육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기본 움직임 기술(FMS: Fundamental Movement Skills)과 다양한 스포츠를 배우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종목에 참여하며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신체활동을 경험한다.

최근 학교체육은 정규 체육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의 체육수업 편성, 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신체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또한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종목별 대회(이하 '전국 축전')와 같은 참여와 교류의 장을 통해 학교에서 시작된 스포츠 경험이 전국 단위의 활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제7차 교육과정 이후 학교급별 체육수업은 어떻게 편성되어 왔으며, 실제 학교에서는 체육수업과 이를 위한 공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교육과정과 학교체육 현황,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및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데이터를 통해 최근 학교체육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교육과정 속 체육수업, 안정적으로 이어지다.

제7차 교육과정 이후 학교급별 체육수업의 편성 방식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업시간을 확보해 왔다. 초등학교 3~6학년은 제7차 교육과정부터 현행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학년별 연간 102시간의 체육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은 통합교과인 '즐거운 생활'을 통해 신체활동을 경험해 왔으며, 2026년 교육과정 수시 개정으로 '건강한 생활' 교과가 신설되어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중학교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 3년간 272시간의 정규 체육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2012년 9월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이 도입되면서 정규 체육수업 외에도

교육과정 안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현재는 3년간 정규 체육수업 272시간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136시간을 합해 총 408시간의 체육수업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제7차 및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체육 68시간을 공통으로 편성하고 이후 학년은 학교별로 선택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체육을 3년간 10단위 이상 이수하고, 2013년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부분 개정하여 매 학기에 편성하도록 하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체육수업을 경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매 학기 편성 원칙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현행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표 1 교육과정 개정 시기별 체육수업 및 체육활동 시수 변화

<table>
<tr><th>교육과정(연도)</th><th>초등학교</th><th>중학교</th><th>고등학교</th></tr>
<tr><td>제7차·2007 개정</td><td rowspan="3">초3~6, 학년별 102시간
통합교과(즐거운 생활)</td><td>272시간</td><td>공통 68시간,
고2,3 선택 편성</td></tr>
<tr><td>2009 개정</td><td rowspan="3">272시간 +
학교스포츠클럽 136시간</td><td rowspan="2">필수 이수 10단위*,
매 학기 편성
* 단위당 17시간</td></tr>
<tr><td>2015 개정</td></tr>
<tr><td>2022 개정</td><td>초3~6, 학년별 102시간,
1~2학년 '건강한 생활' 신설
(2026 수시 개정 '28년 적용)</td><td>필수 10학점** 이상,
매 학기 편성
** 학점당 16회(50분 기준)</td></tr>
</table>

교육과정의 기준을 바탕으로, 체육수업을 확대·운영하다.

국가 교육과정에 체육수업 시간을 정하는 것은 모든 학생의 기본적인 신체활동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실제 학교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학교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체육수업을 확대하여 편성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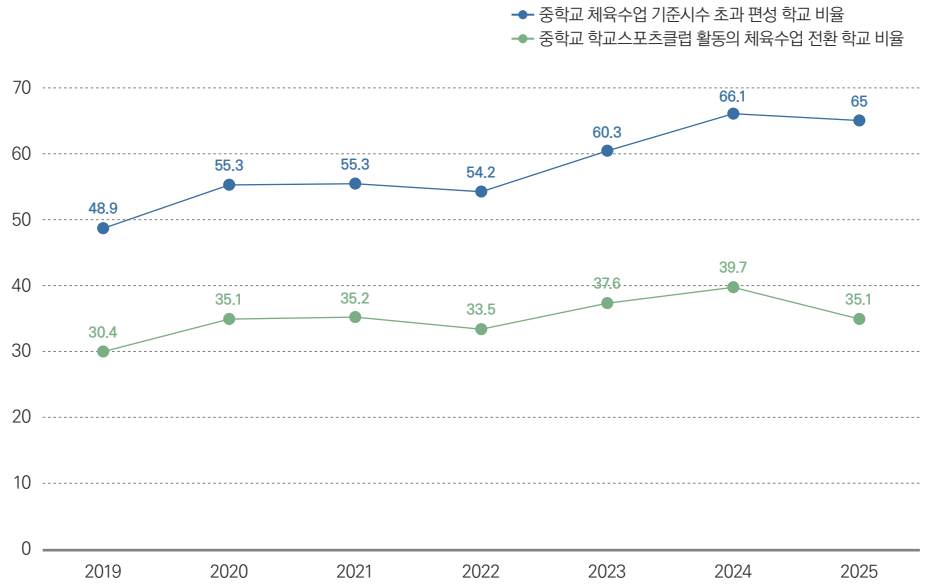
2025학년도 학교체육 현황 조사 결과, 전체 중학교의 65.0%가 교육과정에서 정한 체육수업 기준 시수를 초과하여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8.9%였던 비율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55.3%, 2023년 60.3%, 2024년 66.1%까지 높아졌고, 2025년에는 65.0%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2019년과 비교하면 6년 사이 16.1%p 높아진 것이다.

중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일부를 체육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생들이 정규 체육수업 외에도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지만,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 그 일부를 체육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실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수업으로 전환한 학교의 비율은 2019년 30.4%에서 2020년 35.1%, 2021년 35.2%, 2023년 37.6%, 2024년 39.7%로 높아졌다. 2025년에는 35.1%로 여전히 중학교 3곳 중 1곳 이상이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이 단순히 정규 체육수업과 별도로 운영되는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 여건에 따라 체육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중학교 체육수업 기준 시수 초과 편성 및 학교스포츠클럽 체육수업 전환 학교 비율



* 출처: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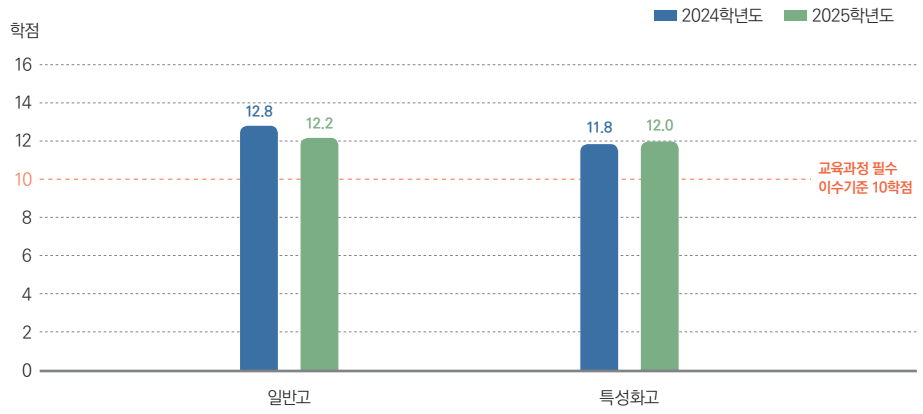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를 선택하면서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체육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체육을 매 학기에 편성하고 3년간 10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현행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10학점의 필수 이수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체육수업을 편성하고 있을까? 2024학년도 고등학교 3년간 체육교과 총 편성 학점은 일반고 평균 12.8학점, 특성화고 평균 11.8학점 이었으며, 2025학년도에는 각각 12.2학점, 12.0학점으로 나타났다. 두 학년도 모두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평균 편성 학점이 교육과정의 필수 이수 기준인 10학점을 넘어섰다.

이는 고등학교에서 체육수업이 단순히 교육과정상 최소한의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학교 유형 모두 평균적으로 교육과정의 필수 이수 기준보다 많은 체육교과 학점을 편성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림 2 고등학교 3년간 체육교과 총 편성 학점



* 출처: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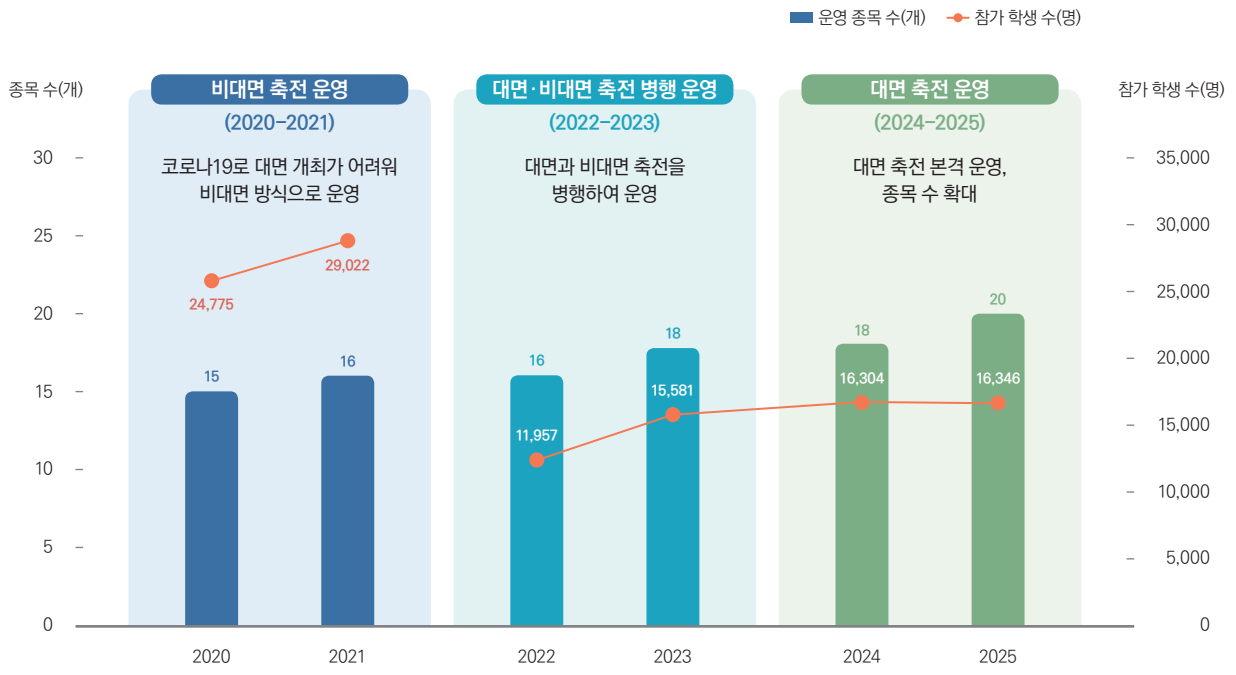
학교에서 시작한 스포츠 경험, 전국의 학생들과 이어지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교 안의 경험에서 끝나지 않는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익힌 다양한 스포츠를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경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으로 전국 축전이 개최·운영되고 있다.

전국 축전은 코로나19 이전부터 학생 참여가 많은 종목을 중심으로 꾸준히 운영되어 왔다. 2020년 코로나19로 대면 대회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대면 대회를 대신해 비대면 전국 축전을 운영하여 2020년 15개 종목에 24,775명, 2021년 16개 종목에 29,022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즉 코로나19 시기에도 전국 축전이 중단되지 않고,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참여기회를 이어갔다.

2022년부터는 비대면 방식과 함께 대면 대회가 다시 운영되었다. 2022년 대면 대회는 16개 종목에 11,957명, 2023년에는 18개 종목에 15,581명이 참여하였다. 2024년부터는 대면 방식으로 운영되어 18개 종목에 16,304명, 2025년에는 20개 종목에 16,346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최근의 변화를 보면 참가 학생 수는 2024년과 2025년 약 1만 6천 명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종목 수는 18개에서 20개로 늘어났다.

그림 3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종목 수 및 참가 학생 수 변화



* 출처: 교육부
* 2020~2021년은 코로나19로 대면 축전을 개최하지 않았으며, 2022~2023년은 대면·비대면 축전을 병행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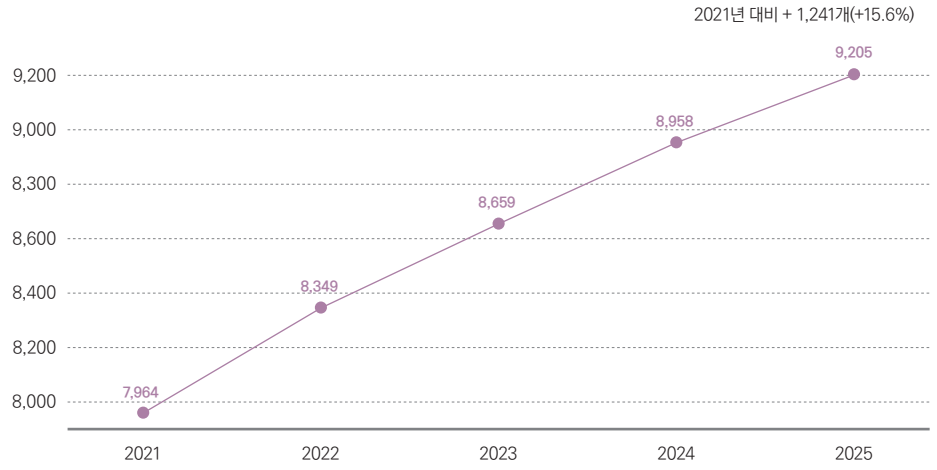
체육활동을 위한 학교의 공간적 기반도 확대되다.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체육수업과 다양한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공간도 중요하다. 특히 체육관은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으면서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학교체육 시설이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은 2021년 7,964개에서 2022년 8,349개, 2023년 8,659개, 2024년 8,958개, 2025년 9,205개로 매년 증가하였다.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사이 1,241개(15.6%) 증가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적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학교급별로도 체육관이 늘어나고 있다. 초등학교는 2021년 3,911개에서 2025년 4,740개, 중학교는 2,024개에서 2,311개, 고등학교는 2,029개에서 2,154개로 모두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학교체육 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적 기반이 초·중·고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림 4 전국 초·중·고등학교 체육관 수 변화



* 출처: 학교알리미

교육과정에서 수업과 공간으로, 다시 다양한 스포츠 경험으로

학교체육은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의 기반을 함께 마련해 왔다. 초등학교에서는 체육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정규 체육수업과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체육활동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도 매 학기 체육수업을 편성하여 학생들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과정의 기준에만 머물지 않는다. 2025학년도 중학교의 65.0%가 체육수업 기준 시수를 초과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35.1%는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도 교육과정상 필수 기준이 10학점인 가운데 실제 3년간 체육교과 편성 학점은 일반고 12.2학점, 특성화고 12.0학점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시작한 스포츠 경험은 전국 단위의 참여와 교류로도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국 축전을 이어갔으며, 대면 활동이 다시 활성화된 이후 2025년에는 20개 종목에 1만 6천 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뒷받침하는 공간적 기반도 확대되고 있다. 학교 체육관은 2021년 7,964개에서 2025년 9,205개로 증가하면서 체육수업과 다양한 학교체육 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학교체육 관련 데이터는 최근 학교체육의 모습을 '시간·수업·공간·경험'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보여준다. 교육과정에서 체육활동 시간을 확보하고, 실제 학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체육수업으로 편성하며,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전국 축전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하고 다른 지역의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학교체육이 모든 학생에게 움직이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그 경험이 다양한 스포츠 참여와 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체육활동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갈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제7차~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시수 기준 자료.
- 교육부(2020~2025).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개최 및 참가 현황.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